

C.E.O Message

Work-Life Balance 균형적인 삶

“열정을 가지고 가치지향적인 삶을 살아
가는 Dynamic Balance”

“Dynamic한 인생의 연속적이며 다층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일과 행복의 진
정한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
야 삶 자체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다. 나는
이를 Dynamic Balance라고 부르고 싶다.”

2007년 한 해를 마무리 할 시점이다.

거칠게 내달려온 시간들을 되짚어보고 성찰하며 이를 통해 성숙해지는 기회를 가지는 것은 인간만이 가지는 특질 중의 하나이다. 뱀이나 쥐나 원숭이도 일정도의 정서와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쥐가 생존을 시작하면서 지금 까지 쥐구멍만을 들락거릴 때 움막에서 살던 인간이 오늘날 고급 아파트에서 살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과거를 성찰하고 self-feedback을 할 수 있는 Meta-cognition(상위 인지) 능력 때문이다.

최근 사회 일간에는 행복에 대한 필요조건으로 Work-Life Balance가 유행어처럼 쓰이고 있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 하지만 많은 젊은 사람들은 적당히 한쪽을 포기하고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Wellbeing Life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균형이란 일(Work)과 행복(Happiness)이라는 단층적 두 변수 사이에 어느 한 점인 산술적 중앙점(평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Dynamic한 인생의 연속적이며 다층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 진정한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열정을 가지고 가치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때 일과 행복의 진정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야 삶 자체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다. 나는 이를 Dynamic Balance라고 부르고 싶다.

짐 콜린스는 영원한 기업(Built to last)들의 중단연구를 통해 중요한 특성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훌륭한 기업들은 위기상황에서 “존속과 변화”를 동시에 추구 했다는 것이다. 언제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복잡하다. 때로는 여러 요소들이 서로 극단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일(Work)과 행복(Happiness)도 마찬가지다. 선택과 희생의 차원이 아닌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동시에 채워지고 upgrade 되어야 할 challenge의 대상인 것이다.

한 해가 저물어간다.

지난 1년간 열정적인 모습으로 지식과 서비스를 창조하고 혼신의 힘으로 고객들과 호흡한 모든 Carotian들에게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Written by 대표이사 노상충 (James Roh)

